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Family Resilience) 연구

: 모자보호시설 입소자를 중심으로*

Family Resilience in Divorced Female Single-Parent Families

: In Case of Residents in the Institutional Facility for Female Single-Parent Families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학과
박사과정 김 경 순*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교 수 이 미 숙***
Dept. of Living Culture, Graduate School, The Catholic Univ. of Korea
Doctoral Course : Kim, Kyung-Soon
School of Human Ecology, The Catholic Univ. of Korea
Professor : Lee, Mi-Sook

<Abstract>

A family resilience approach aims to identify and fortify key interactional processes that enable families to withstand and rebound from disruptive life challenges. Walsh(1998) described family belief systems, organizational patterns, and communication processes as the three main keys of family resili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hree key factors of family resilience in case of divorced female single-parent families in Korea. The study participants were seven divorced mothers who were living in the institutional facility for female single-parent families. Using a qualitative approach, in-depth interviews were audiotaped and transcribed verbatim for analysis. The study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nts showed positive thinking rather than fear about the adversity induced by the divorce. They also showed the senses of competence, control, and self-esteem. However, the senses of transcendence and spirituality were barely evident. Second, emotional and economic supports from parents, brothers and sisters, and community networks (i.e., mother-child protection institution,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enhanced the family resilience of the participants. Third, the participants showed clear communication, open emotional expression, and shared decision making. This study suggests that more counseling services and parent education be provided by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and institutional facilities as important family resilience factors for divorced female single-parent families who are below the poverty line.

▲주요어(Key Words) : 가족레질리언스(family resilience),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divorced female single-parent family), 질적 접근(qualitative approach)

* 본 연구는 2008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주 저 자 : 김경순 (E-mail : dolbomy017@hanmail.net)
*** 교신저자 : 이미숙 (E-mail : misooklee@catholic.ac.kr)

Ⅰ.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사회는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2007) 자료에 의하면 한부모가구 비율이 1985년 6.2%에서 1995년 5.7%로 감소하였으나 2005년 6.7%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김안자(2005)는 이혼율증가와 중년 남성 사망률증가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는데, 통계청(2007) 자료에 따르면,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구 비율은 '90년 75.2%에서 2005년 48.1%로 감소한 반면,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구 비율은 '90년 24.8%에서 2005년 51.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선화 등(2004)은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증가에 대해 시대적 변화를 설명하면서, 1960년대 이후 도시화 및 산업화와 함께 부부 상호간의 경제적 의존도가 약화되고 가족가치관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가족법이 개정되어 이혼이 유책주의로부터 파탄주의로 바뀌면서 재판이혼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였다.

한부모가족이란,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양친 중의 한 쪽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이때, 자녀의 보호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모(母)가 주 양육자이면 여성 한부모가족으로, 부(父)가 주 양육자이면 남성 한부모가족으로 불리게 된다(장혜경 등, 2001). 한부모가족은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문제점과 취약점이 크게 부각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여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종래 연구들은 여성 한부모가족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들 가족의 스트레스 진단이나 문제점 개선에 대해 주로 연구하여 왔는데, 이는 한부모가족을 역기능적인 가족유형으로 간주하여 연구한 결과일 수 있다(조성연, 2004).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경향은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에 대해 부정적 영향의 감소나 문제해결 측면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한다(임유미, 2007). 그러나 일부 연구들 중에는 한부모가족에게도 그들 나름대로의 강점과 잠재적 능력이 있고 이를 통해 가족의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다는 관점(김안자, 2005)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가족의 구조적 특성보다는 가족의 심리적, 가족관계, 의지 등 상호작용적 특성이 가족구성원에게 더욱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한부모가족에 관한 일부 연구들은 이들 가족의 문제점보다는 한부모가족이 하나의 가족유형으로 어떻게 잘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로 연구의 초점을 옮겨가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의 흐름 가운데의 하나로 가족레질리언스(Family Resilience)에 관한 관점을 들 수 있다.

가족레질리언스는 높은 위험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가족의 경우,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둔 개인레질리언스 개념과 유사하다고 하여 가족학자들에 의해 이름이 붙여진 새로운 개념이다(임유미, 2007). 가족레질리언스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족이 보다 적응적이 되도록 하는 가족의 특징, 차원, 속성을 의미한다(Hawley & DeHaan, 1996). 따라서 가족레질리언스 개념을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에게 적용할 경우, 이혼으로 인한 가족스트레스라는 역경에 대해 가족이 보다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게 된다. 가족레질리언스 개념을 발전시킨 Walsh(2002)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족들은 살아오는 과정에서 획득한 레질리언스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며, 레질리언스 개념적 틀은 예기치 않은 많은 위기에 처해 있는 가족들을 돕는데 적절하다고 보았다. 가족레질리언스는 McCubbin과 McCubbin이 double ABCX 모델을 발전시켜 개발한 레질리언스 모델과 그리고 가족이 스트레스를 견디고 위기에서 회복되는 과정을 밝힌 Walsh(1998)의 이론이 두 축을 이루면서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현은민, 2007). McCubbin과 McCubbin은 가족레질리언스 모델을 가족형태, 가족쉐마, 가족자원, 가족기능, 문제해결과 대처, 그리고 사회적 지지로 구성하고 있는 반면(김미옥, 2001a; 현은민, 2007), Walsh(1998)는 가족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을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으로 보았는데, 이들 요인은 상호작용하면서 가족레질리언스의 시너지효과를 갖는다(이인수, 2004). Walsh의 가족레질리언스 접근은 역동적 실체인 가족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가족과정의 차원에서 가족레질리언스를 구조적, 기능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가족스트레스보다는 가족적응을 보다 강조하면서 강점관점과 레질리언스 시각을 부각시켜 가족을 다차원에서 조명하는 이점이 있다(김미옥, 2001b; 현은민, 2007). 결함과 문제점에 초점을 둔 종래의 결핍 모델과는 달리, Walsh(1998:6)의 레질리언스 지향 접근은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가족의 강점과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으로써, 레질리언스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강점을 함의하는 것이며, 위기나 지속적인 고난을 통해 단련되는 것으로 보았고, 대응이나 문제해결을 넘어서서 긍정적 변화와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부모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위기에 직면한 가족의 적응에 대해 가족레질리언스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특히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연구대상자로 이혼, 사별, 별거 ,미혼모 등을 모두 포함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속성을 잘 나타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족레질리언스가 어떠한지 파악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기존의 결점관점과 달리 가족레질리언스 접근에 근거하여, 가족레질리언스가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으로 하여금 잘 기능하게 하는 요인임을 밝히는 것은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강점중심 접근의 필요성을 널리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Walsh(1998)의 가족레질리언스 요인들은 역경에 처한 많은 가족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을 널리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한국가족에도 적용가능한지 검토해보고 가족레질리언스의 문화적 차이를 함께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Walsh(1998: 17-18)는 가족레질리언스가 경제상황 및 격변의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에 처한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했는데, 특히 한국사회에서 이혼과 빈곤이라는 이중의 역경에 처한 이혼한 한부모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기초하여 가족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혼 후 남성보다는 여성이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역경을 더 많이 경험한다(Amato, 2000; Schwartz & Scott, 1997; 331-351)는 연구결과는 특히 여성 한부모가족에 초점을 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현은민(2007)은 질문지법으로 가족레질리언스를 측정하는 것은 가족의 역동적 상호작용과정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찰법이나 심층면접법과 같은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보다 심층적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상 살펴본 바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는 어떠한지 Walsh(1998)의 가족레질리언스 이론에 근거하여 파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 Walsh(1998)의 가족레질리언스 구성요인인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은 어떠한지 규명해보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이 잘 기능하도록 도와주는 가족레질리언스 요인들을 밝히고, 이를 기초로 가족레질리언스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자보호시설[1]에 입소한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들은 이혼과 빈곤, 그리고 자녀양육의 부담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레질리언스 규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가족레질리언스

1970년대,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위험이나 역경에 처했을 때 잘 대처하고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요인을 밝히고자 연구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였다(Patterson, 2002). 이러한 관점은 현재 '레질리언스'라고 불리는 것으로, 초기에는 개인의 건강과 기능에 초점을 두었다(Patterson, 2002). 따라서 초기 레질리언스의 개념은 개인의 특성으로만 정의하였는데,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체계의 영향과의 상호 작용 맥락에서 가족에게 적용되면서 학대나 폭력, 이혼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 대한 관심을 바꿔 놓았다. 특히 Walsh와 McCubbin은 이러한 환경적 체계들을 가진 가족에게 레질리언스의 개념을 적용시켰다(김안자, 2005).

가족레질리언스는 높은 위험상황에 처한 개인에게 성공적인 적응을 원조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밝히고자 한 개인레질리언스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가족레질리언스는 개인레질리언스와 달리 가족을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 간주하여 높은 위험에 직면한 가족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살피는 것이다(임유미, 2007). Hawley와 Dehaan(1996)은 가족레질리언스가 강점관점과 가족스트레스 이론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개인레질리언스 연구의 활성에 힘입어 재구성된 개념으로 보고 있다(이인수, 2004). 따라서 가족레질리언스 연구는 강점관점과 가족스트레스 이론에 연구의 기원을 두고 가족의 부적응보다 성공적인 적응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김미옥, 2001a).

Patterson(2002)은 가족레질리언스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직면한 가족의 경우 결과가 좋게 나타났을 때 가족을 재생시키는 힘과 같다고 하였다. 가족레질리언스는 '실패에서 회복하며 곤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복원할 수 있는 능력(Wolin & Wolin, 1993)이며, 가족의 잠재적인 회복과 성장을 확신하며 가족이 어려운 도전을 견디고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상호작용적인 과정(현은민, 2007)을 의미한다. 가족레질리언스 접근은 가족들이 파괴적인 삶을 견뎌낼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상호작용적인 과정들을 규명하고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종래의 문제중심적 접근과 달리, 실패보다는 성취와 강점에 초점을 둔다(Paul, 2007). 특히 가족레질리언스의 역설은 가장 어려운 시기가 가장 최고의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점이며, 가족레질리언스 접근은 전통적인 결점중심 접근으로부터 강점중심의 접근으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임유미, 2007).

2. Walsh의 가족레질리언스 구성요인

본 연구에서는 Walsh(1998)의 가족레질리언스 이론에 기초해 있으므로 Walsh가 제시한 가족레질리언스의 핵심적 구성요인인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신념체계는 모든 가족기능의 핵심이며, 레질리언스의 강력한 힘으로, 가족에게 응집력을 제공하고 가족원들이 위기상황과 역경을 해석하고 행동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

1)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모자보호시설은 전국 41개소이며 총 1,042 가구가 입소해있다. 입소대상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만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이며, 보호기간은 3년으로 2년 연장이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08).

다. 신념체계는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 등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란, 가족의 위기와 역경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해석으로, 불확실한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고 명확화하는 능력은 더 쉽게 인내하게 하고 새로운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변화할 수 있게 해준다(Walsh, 1998: 105). 역경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란, 불굴의 인내, 용기와 격려, 희망과 낙관주의, 그리고 적극적 정복감을 뜻하며, 위기나 실패를 도전으로 보고 더 강해지고, 도전을 정복하기 위해 적극적 방법으로 위기에 접근하도록 한다. 또한 가족강점과 가능성에 대해 확신하는 경향이 있으며, 희망을 유지하며 스스로 노력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초월과 영성이란, 더 큰 가치와 목적을 지향하며 역경을 통하여 학습하고 성장한다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종교와 영성은 회복, 치유, 레질리언스를 위한 강력한 치료적 자원이 될 수 있다(Walsh, 1998:131). Stinnett 등은 인간이 신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 서로의 관계에 보다 더 인내하며 용서하고, 분노를 빨리 이기게 하고, 보다 긍정적이게 하며, 보다 지지적이도록 하고, 종교가 강조하는 많은 가치들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인간관계의 질은 확실히 높아진다고 하였다(김안자, 2005).

둘째, 조직유형은 관계를 정의하고 행동을 규제하며, 내·외적 규범을 유지하고, 문화 및 가족의 신념체계에 의해 강화된다. 조직유형은 융통성, 연결성, 사회경제적 자원 등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융통성이란, 변화하는 발달적 환경적 요구에 적응하는 능력이다. 융통성은 특히 가족생활주기의 주요한 전환점이나 혼란의 시기에 중요하며 가족 내의 규칙과 역할변화에 필요하다(Walsh, 1998:142-143). 연결성이란,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연합, 지지, 협력하는 능력을 말하며, 건강한 가족의 구성원들은 분화됨과 동시에 상호 연결되어 있다. 독립적이면서도 지지적인 가족은 상당한 정서적 분리가 있지만,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함께 의사결정하며 서로 지지한다(Walsh, 1998:150). 사회경제적 자원이란, 가족이 외부의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것으로서, 확대가족 및 친지의 지지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지지망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홍정애, 2007). 확대된 친지와 사회적 네트워크는 실제적 원조와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역사회연결을 제공한다. 많은 가족들이 처한 위기는 단지 가족내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에게 짐을 주는 다른 사회문제와 빈약한 자원에서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가족과 사회적 네트워크는 위기시에 자연적인 '완충장치' 이다(Walsh, 1998:176-177).

셋째, 의사소통과정은 광의로는 사회경제적, 실제적, 도구적 문제해결 모두를 포함하는 정보의 교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Walsh, 1998:180). 의사소통과정은 명료성, 개방적 정서표현, 상호협력적 문제해결 등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명료성이란, 명확하고 일관성있는 말과 행동을 의미하며, 애매한 정보들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의사소통이 애매하고 왜곡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때 구성원들은 '마음읽기'를 시도한다거나 잘못된 가정을 함으로써 오해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Walsh, 1998:182). 개방적 정서표현이란, 가족구성원들이 기쁨과 고통 뿐 아니라 희망과 두려움까지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서로 의견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상호간에 사랑, 감사, 존중 등의 긍정적 감정의 개방적 표현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홍정애, 2007). 상호협력적 문제해결이란, 당면한 문제에 대해 가족이 공유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문제와 갈등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해결 능력은 가족이 문제를 예방하고 미래의 위기와 도전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홍정애, 2007). 가족의 의사소통이 보다 명확하고 이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개방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상호협력적인 문제해결로 접근함으로써 이혼이라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보다 레질리언트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가족레질리언스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고찰

가족레질리언스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구조화된 질문지법을 이용한 양적연구로서, 장애아동 및 그 가족(김고은, 2006; 김영주, 2007; 김미옥, 2001b; 오승아·이양희, 1999; 장용주, 2006; 홍정애, 2007)이 주 연구대상이며, 그 외에 만성질환 아동가족(이선애, 2004), 치매노인 부양가족(윤수희, 2004), 뇌손상 가족(민현순, 2007)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미옥(2001b)은 가족레질리언스가 장애아동가족의 적응뿐만 아니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선애(2004)는 소아암 중심의 만성질환 아동가족 202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스트레스, 가족의 사회경제적 제변인, 아동의 질병변인 등과 비교할 때 가족레질리언스 변인이 가족적응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노인 부양가족 연구(윤수희, 2004)에서도 가족레질리언스의 모든 하위요인이 가족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민현순(2007)은 뇌손상자 가족적응 향상을 위한 가족레질리언스 향상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서, 가족레질리언스 향상프로그램에 참여한 뇌손상자 주부양가족은 가족레질리언스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 대처전략, 사회적 지지가 향상되었으며, 가족적응 또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가족레질리언스 향상프로그램은 예방적 모델로서, 뇌손상이라는 위기적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기나 학대 등 잠재적인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어 가족복지의 실천적 차원에서도 의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역경에 처한 가족의 적응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가족스트레스의 감소와 대처에 대한 개입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강점과 잠재력에 중점을 둔 가족레질리언스의 접근이 역경을 극복하고 가족적응 향상에

보다 효과적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한편, 한부모가족을 가족레질리언스와 관련지은 연구를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의 자녀에 대한 연구(박인정, 2007; 서지영, 2002; 송옥선, 2006; 전유진, 2006)가 주를 이룬다. 서지영(2002)은 부모이혼이 자녀의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아동의 레질리언스에 따라 조절될 수 있으며, 레질리언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불안과 공격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유진(2006)은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은 가족레질리언스인 가족간의 성실성과 긍정적 사고방식, 가족에 대한 신뢰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선(2006)은 부모이혼을 겪은 대학생의 경험에 관해 레질리언스를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한 결과, 자녀들은 정서적 지지 대상을 통해 지속적인 삶의 안내와 조력을 얻었고, 상호믿음을 주고 받으며 소극적이고 위축된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질리언스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정(2007)은 한국 이혼자녀의 가족레질리언스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족의 위기와 역경에 대해 긍정적 의미부여와 긍정적 사고를 통해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들은 종교를 통해 도덕적 삶으로의 지향이 많았음을 보여주었으며, 이혼 후 부모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일관성과 연결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의사소통과정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한쪽 부모와의 소통만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이혼한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는 불안과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들이 나타났지만, 레질리언스를 통해 환경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역경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이혼으로 母 , 또는 父 중에서 한부모와 살게 되는 자녀들에게 함께 살지 않는 다른 한부모와의 지속적인 만남과 연결이 자녀들에게 레질리언스를 유지할 수 있는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자녀에게 국한되지 않은 한부모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 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구정화(2005)는 이혼 이외에 사별, 별거, 독신모 등을 모두 포함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레질리언스의 하위요인인 가족도식, 내구력, 대처반응, 의사소통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었는데, 가족의 통제력과 가족관여가 있을 때 가족적응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안자(2005)의 연구에서는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족레질리언스 구성요인 중에서 조직유형의 연결성과 가족자원만 유의미하게 가족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은민 등(2006)은 건강한 한부모가족의 특성으로 의사소통과 가족유대, 자녀적응과 대처능력을 꼽았고, 한부모가족의 건강성은 개인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은민(2007)은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대해 가족레질리언스가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계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조절효과를 나타냈으며, 가족레질리언스가 가족의 위험요인 극복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가족적응의 관계를 지원하며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에 관한 임유미(2007)의 연구에서는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적응을 돕기 위해서 이혼 스트레스의 감소에 대한 개입도 중요하지만 가족레질리언스에 대한 개입을 통해 가족의 적응을 더 잘 도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 하위요인으로는 주로 가족유형의 연결성과 사회경제적 자원, 의사소통과정 및 대처능력 등이 주로 지적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Walsh(1998)가 제시한 가족레질리언스 구성요인 중 신념체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덜 연구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자녀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왔으며, 가족레질리언스의 구성요소들을 일부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혼 이외에 사별, 별거, 독신모 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 특성이 부각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또한 Walsh(1998)가 제시한 가족레질리언스 구성요인들 중 일부만 연구되어왔음을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질적 연구는 모집단을 소규모로 설정하고 그 모집단내의 모든 사례를 총체적으로 연구하거나, 양적연구의 '확률적 표집'과는 성격이 다른 '준거적 선택'을 통해 연구사례를 선정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 특유의 속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례를 선택하는 의도적 표집으로 '전형적 사례선택' 방법(조용환, 1999:27-28)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본인의 의지로 이혼하고, 본인의 근로소득이 가족의 주 수입원이며, 학령기 자녀의 양육, 즉 양육과 가족부양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하였다. 경기도에 소재한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후 적응하여 생활하고 있는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 중에서 어머니 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9.7세이고, 한부모가족이 되었을 때의 평균연령은 34.2세였다. 여성 한부모가족이 된 기간은 2-9년으로 평균 5.4년이었다. 연구대상자 중 6명은 모두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 연구대상자의 학력은 고졸 4명, 전문대졸 3명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자활후견기관 2명, 소규모 옷수선집 운영, 보험설계사, 간호조무사, 재활교사, 그리고 식당 일용직 등으로 일하고 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사례6	사례7
연령	42	41	41	41	36	38	39
학력	전문대졸	전문대졸	고졸	고졸	고졸	전문대졸	고졸
직업(이혼전)	자활	학습지교사	생산직	자영업	자영업	자영업	보험설계사
직업(현재)	자활	보험설계사	자활	일용직	자영업	재활교사	간호조무사
월소득(만원)	82	120	82	90	50	140	110
자녀(명)	3	2	1	3	2	2	2
자녀연령과 성별	5세(남) 초5(남) 중1(여)	초3(남) 중1(여)	초4(여)	중1(남) 고1(여) 고3(여)	초3(남) 초6(여)	초4(여) 중1(남)	6세(남) 초5(남)
이혼후 한부모가족 기간	3년	4년	9년	9년	2년	5년	6년
친권	전남편	전남편	본인	전남편	본인	전남편	본인
자녀양육권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이혼제안자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이혼형태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협의	협의
이혼당시 연령	39	37	32	32	34	33	33
이혼 전 결혼기간	8년	12년	3년	9년	10년	8년	7년
주 이혼사유	남편의 사기결혼	도박 생활무능	알콜중독, 생활무능	가정폭력 생활무능	경제적문제	도박, 외도, 생활무능	가정불화
친정(원가족)반응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논안함
전배우자와 연락여부	연락한다	연락한다	단절	연락한다	단절	연락한다	단절
시설입소일	2006. 8	2005. 2	2007. 2	2004. 3	2006. 9	2003.12	2004. 2
시설입소기간*	1년 4개월	2년 10개월	10개월	3년 9개월	1년 3개월	4년	3년10개월

*입소기간: 2007년 12월 기준

특히 보험설계사 일을 하고 있는 대상자는 시설에 입소한 후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얼굴성형수술을 여러 번 받았으며 몇 차례 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이다.

한편, 시설에 입소한 후 어렵게 야간 전문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대상자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역시 시설 입소 후 야간 간호학원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대상자는 노인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다. 대상자들의 월 평균 소득은 50-140만원 수준이며 1명을 제외한 모든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이다.

자녀수는 평균 2명이며, 자녀의 연령은 5세와 6세 각 1명, 초등학생 7명, 중・고생 6명이다. 이혼으로 여성 한부모가족이 되었을 때 자녀의 연령은 1세-11세로, 자녀 양육권은 모두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으나, 친권은 3명만 母에게 있고, 나머지는 父에게 있었다. 대상자 모두 자녀의 父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전 남편의 카드빚까지 부담하고 있어 대부분 신용불량자 상태이다.

여성 한부모가족이 된 이혼 사유는 남편의 도박, 외도, 폭력, 알콜중독, 경제적 무능력 등이었으며, 조성연(2004)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현재 배우자와의 연락은 3명이 단절된 상태이며, 연락하는 경우에도 본인보다는 자녀들이 父와 직접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혼했다는 사실이 친정부모나 형제에게 부끄러운 일로 인식되기 쉽다고 한 옥선화 등(2004)의 연구와 달리 본 대상자들은 대부분 친정부모나 형제들로부터 오히려 이혼에 대해 지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에 대해 질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개방형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의미구조와 관련된 사회적 맥락의 이해에 초점을 두고 현상에 대한 관찰, 기술 그리고 질적 판단 또는 해석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문화기술적 연구법(성태제・시기자, 2007)에 근거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대상자들이 시설에 입소할

당시 인테이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참고한 후 면접시 재확인하였다. 대상자들에게는 미리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면접 날짜와 시간을 약속하였으나, 때때로 직장관계 등으로 면접약속을 몇 번씩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면접은 대상자들 대부분이 휴일과 주말에도 직장일을 하고, 평일에는 직장에서 늦은 밤에 귀가하여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이루어졌고, 면접장소는 대상자가 생활하는 모자보호시설 숙소였다. 면접은 2007년 12월 30일부터 2008년 2월 15일까지 실시되었으며 1차 면접 시간은 1-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1차 면접 실시 후 대상자들의 사정에 따라 개인별 간격을 두고 2차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내용은 먼저 일반적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다. 다음에는 연구대상자의 가족레질리언스를 알아보기 위해 Walsh의 가족레질리언스 3개 구성요인들에 근거하여 질문하였다. 이혼이라는 역경에 대한 신념체계, 이혼 후 변화된 가족의 조직유형, 그리고 가족의 의사소통과정은 어떠한지 질문하였으며, 최대한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하였다. 면접내용은 녹음을 실시하고 전사본을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천혜정(2004)은 질적 연구의 자료분석은 신뢰도 및 타당도가 양적 연구와 다르므로, 텍스트와 연구자,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주관성이 지속적인 직간접의 대화과정을 거쳐 서로 만나는 상호주관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가장 보편적 방법은 첫 번째 면접 시 발견한 테마를 두 번째 면접 때 참가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최종 결과물에 대해 연구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며, 이것은 해석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녹음한 면접내용을 전사한 A4용지 35쪽 분량에 대해 1차 분석 후에 연구자와 대상자간 대화과정을 거쳐 이야기한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상호주관적 합의를 이루어냈다. 그런 다음 면접 내용을 반복적으로 속독하고 각각의 전사본을 정독하면서 Walsh의 가족레질리언스 3개 구성요인과 관련한 하위요인들을 추출하였으며, 기타 중요한 의미를 가진 개념들을 추가로 추출하여 가족레질리언스 요인들로 분류하고 범주화하였다. 추출된 주요한 의미의 개념들을 모두 포괄하도록 전체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면서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신념체계

1) 이혼에 대한 의미부여

대상자들이 경험한 이혼이라는 역경에 대해 어떻게 의미부여하고 있는지 면접결과에서 나타난 특성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너무 잘했다구 생각을 해요, 그동안 너무 참구 살았구,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사례1)

"저는 너무 편해요. 근데 이혼해 좋은 것은 일단 제가 스트레스 덜 받구, 아이들한테두 싸우는 모습 보여주는 거 보다는 더 나은것 같아요" (사례2)

"저는 제가 이혼녀라는 생각을 했던 거는 이혼했을 당시 아주 잠깐 했봤던것 같애요. 잠깐 사람들한테 휩쓸려 갔구 애가 너무 어리니까 내가 쟤를 어떻게 키우나 순간 겁났던거 그 잠깐이였던거 같애요" (사례3)

"나는 그 두려움같은게 없더라구, 그냥 막 스스로 자만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나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니까 선택두 잘했구...(중략)" (사례4)

"오히려 저는 이혼을 한 것이 애들한테두 그렇구 저두 그렇구 잘 한것 같아요. 저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 (사례5)

"상황에 따라서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더 좋은...(중략) 여성 개인한테 봤을 때는 결혼상황이 정말 안좋았다면, 그 후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례6)

"전 이혼이라는 것에 별 의미를 안뒀어요. 그냥 넷이 사는 것보다 오히려 셋이 사는게, 더 편하구 좋았어요" (사례7)

본 연구대상자들은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불성실한 생활 등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이혼을 통해 극복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상자 모두 자발적 의지로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모자녀가족으로의 재구조화를 통해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의미부여를 하고 있었다. 불확실한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고 명확화하는 능력은 상황을 보다 쉽게 인내하게 하며, 인생의 새로운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변화할 수 있게 해준다(Walsh, 1998: 195)는 점을 보여준다.

2) 이혼을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긍정적 시각

대상자들이 이혼을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시각은 어떠한지 면접결과에서 나타난 특성을 추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낙관주의

"힘들거나, 무섭거나, 어렵거나 이런 것은 그냥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구, 그냥 잘 될꺼라구 생각하구... 될 수 있는 한 이렇게 생각해요" (사례1)

"근데 시간이 얼마 안된 거 같은데 요즘들어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다보니까 제 자신이 안좋은 생각이 들면 바꿔버려요" (사례3)

일부 대상자들은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압도적인 고통에 직면하여 희망을 유지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게 하며, 희망은 문제가 있는 관계를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스트레스와 위기를 대처하는 데는 낙천주의의 강한 효과가 제시되고 있다(Walsh, 1998: 116)는 점을 지지해준다.

(2) 적극적인 주도권과 수용

"저는 유년시절부터 절대로 생활이라든지 환경의 어려움에 지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한 환경 이라든지 주변사람들의 시선이나 의식을 전혀 하지 않는 편이예요 ..." (사례2)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남한테 도움 받는것 제일 싫구요.. 일단 내가 몸이 건강하고 나는 다 할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눈물이 하나도 안나더라구요. 오히려 편안한 마음이였어요" (사례7)

레질리언트한 사람은 문제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변화할 수 없는 것은 수용하며, 할 수 있는 것은 주도하고 통제하려고 시도한다(Walsh, 1998: 123)는 지적과 같이, 일부 대상자는 주어진 여건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도해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3) 용기

"나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대해서 뭐 도피하지 않고 그냥 나한테 주어진대로 내가 모든 것 박차고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의지력 같은거 그리고 어차피 내가 엄마잖아 여자일 때는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 없었지만 엄마라는 그 자체로서 위대한 힘이 나오는거 같애" (사례4)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비범한 용기는 진취적이도록 용기를 주며, 다른 사람들에게 심오한 의미와 영감을 줄 수 있다(Walsh, 1998: 115)는 지적과 같이, 일부 대상자는 비록 특별한 능력은 없어도 단지 아이들의 엄마라는 이유만으로도 용기를 갖고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4) 인내

"사람 위에 사람없구 사람 밑에 사람 없듯이 내가 조금 잘 하는 부분은, 좀 못하는 사람하구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구...(중략)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장을 다니던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사례6)

압도적인 역경 앞에서 견디며, '잘 투쟁할 수 있는' 능력인 불굴의 인내는 레질리언스의 핵심요소로, 완고함이나 고집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견디어 내기 위한 강인한 끈기요 결단으로 볼 수 있다(Walsh, 1998: 114)는 지적과 같이, 일부 대상자는 인내를 갖고 끈기 있게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5) 희망유지

"오히려 이혼 후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어요. 아이들에게도...(중략) 뭐, 아빠에 대한 흉은 안봐요. 그냥 아빠가 상황이 이러니까 너희들 하구 지금은 같이 살지 못한다구..." (사례5)

일부 대상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녀들에게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혼이라는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은 모두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 및 심리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모든 어려움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의 임파워먼트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변의 좋지 않은 시선도 극복할 수 있었으며,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굴복하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와 당당한 자세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자존감 회복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신이 중요하며, 자신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할 능력이 있음이 자존감으로 작용할 때 이들의 삶은 당당해질 수 있다(옥선화 등, 2004)는 지적과 같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야채장사도 하구, 아파트 같은데 요일장이 서면 그곳에서 장사하구, 늦은 시간에는 트럭에 아이들을 태우고 다녔어요" , "가사도우미와 단무지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 벌어서 빚두 갚구, 친정아버지 병원비두 대드리구 그랬어요, 남들은 신용불량자 되면 안 갚아두 된다구 하는데, 근데 나는 싫트라구요 그래서 다 갚았어요." 대상자들은 이혼으로 인해 자신이 스스로 자녀 양육과 생계유지를 책임져야 함에 긍정적 시각으로 당당히 맞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초월과 영성

이혼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초월과 영성에 대해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면접결과 나타난 특성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들 문제가 커지면서 아무리 이것저것 다 방법을 강구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다 생각할 때는 저절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기도도 나가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도 가질 수 있구요..." (사례1)

"저는 이혼하구 교통사고 당하구,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반복되었지만, 남의 동정이나 도움은 더더욱 받기 싫었어요, 그리구 남의 도움도 다 빚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례2)

"아마 신앙이 없었으면, 제대로 버티지 못했을 꺼예요. 저는 결혼도 성당에서 했거든요, 애하고두 주일마다 같이 성당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어요" (사례3)

"나는 종교는 없어, 자식에 대한 희망이지, 뭐든지 자식이 잘되게 하는거...(중략) 주어진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하면은 괜찮을것 같애, 뭐 힘든것은 있지만 뭐 그것은 어차피 내가 선택한 거니까, 책임져야 하는거지...." (사례4)

"힘들어도 잘 되겠지 하는 생각이 늘 있기 때문에 왠만한 일은 그냥 넘어가는 편이예요. 스스로 노력도 하죠, 당당하게 살려고..뭐, 즐겁게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요" (사례5)

"이혼하고 처음에는 많이도 울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울지말자, 울지말자' 되새기면서 눈물이 안나더라구요" (사례6)

"전에는 가지려구만 하고, 남에게 주는 것을 몰랐어요. 비록 내가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먹구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남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한테 줄 줄두 알구" (사례7)

<사례 1>과 <사례 3>의 경우에만 종교와 신앙생활을 언급하였고, 대부분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 자기효능감, 타인을 돕는 사회적 책임감 등의 정신을 더 많이 보여주었다. 이는 종교와 영성이 회복, 치유, 레질리언스를 위한 강력한 치료적 자원이 될 수 있다는 Walsh(1998)의 지적과 차이를 보인다.

2. 조직유형

1) 융통성

대상자들이 이혼이라는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융통성은 어떠한지 면접결과 나타난 특성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로 싫어하는거 안하기. 우리집 금기사항은 그거예요...(중략) 근데, 큰 애가 막내를 이뻐하고, 제가 늦게 와도 잘 챙겨주구, 막내도 혼자 있을 때보다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적으로 된 것 같아요" (사례1)

"되도록이면은 짜증내지 말구 , 찡그리지 말구, 신경질 내지 말자. 뭐, 기분 나뿐일 있으면 얘기를 하구, 되도록이면 집안에서 화내지 말자...(중략) 저는 아이들에게 이혼전 환경과 이혼하고 나서의 환경의 변화를 크게 느끼지 않도록 오히려 더 아이들하고 시간을 함께 했어요, 여행을 하면서... " (사례2)

"나는 아빠랑 연결되는 걸 더 원해, 그리고 엄마가 뭐 내가 혼자 키웠으니까 너는 아빠보면 안돼, 그러면 그게 아이들한테 마음의 상처잖아 그치만은 엄마나 아빠는 그렇게 됐지만 니네들 아빠니까 보고 싶을 때 보고, 보기 싫으면 안보는 거다. 그건 니네들 선택이다" (사례4)

"일단 내가 뭐, 주부에서 가장되고 하니까, 애들 어려서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부여했어요. 뭐, 쓰레기 당번, 뭐 아니면 엄마가 직장 나가구 나서 설거지 같은거...(중략) 집안일은 좀 분담해서 하죠, 나름대로..." (사례6)

"글세요, 모르겠어요. 사소한 것을 오히려 더 해주게 되더라구요...(중략) 만약에 시설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있었다면 오히려 애들이 밖으로 더 나돌아 다니구..그래서 참 감사해요. 나도 맘놓고 일할 수 있구 아이들두 또래들과 맘놓고 편하게 놀 수 있구..." (사례7)

대상자들은 가족 간의 규칙과 역할분담 등을 통해 변화된 가족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가족이 잘 기능하기 위해서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규칙들, 역할들, 상호작용 패턴의 안정성이 필요하며, 가족구성원들은 스스로 만든 약속을 따르도록 기대된다(Walsh, 1998: 143)는 지적과 같다. 또한 이혼 후 자녀의 긍정적 적응을 위해 같이 살지 않는 부모와의 만남에 대한 예견과 신뢰가 접촉의 양만큼이나 중요하며, 관계를 지속시켜 주는 새로운 일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Walsh, 1998: 144)는 지적과 같이, 전남편과 연락두절인 대상자들만 제외하고, 대부분은 본인과 상관없이 전남편

과 자녀들의 만남을 허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대상자 중에는 오히려 자녀들에게 이혼 전과 후의 변화를 크게 느끼지 않도록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융통성을 보여주었다. 이혼으로 인해 가족생활의 변화가 생겼을 때, 변화를 안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유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박인정, 2007)는 지적과 같이, 본 대상자들은 이혼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에 대해 자녀들이 어려움을 덜 겪도록 융통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결성

연구대상자들이 이혼이라는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연결성은 어떠한지 면접결과 나타난 특성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들 아빠가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아빠 노릇을 하려고 했고, 시어머니도 손자들은 내식구라는 생각이 강하셨구요. 그래서 이혼하자마자 아빠나 시댁식구들과 아이들이 분리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요..." (사례1)

"일부러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키웠어요, 그리구 아이들 아빠하구의 관계는 저와는 상관없이 아이들에게는 지속돼야 한다구 생각해서, 방학 때마다 아빠한테 보내서 얼마동안 아빠하고 있다 오게끔 해요" (사례2)

"절대 아빠 없다고 해서 뭐 너랑 나랑 외롭거나, 어디가 좀 비거나, 이런 느낌 안들게, 그렇게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제가 애한테 많이 하죠. 그리고 시간을 많이 갖죠 애한테. 애가 영화보러 가는거 좋아하니까, 영화같은거 애랑 보러가기두 하고" (사례3)

"처음에는 애기 아빠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라는게 이혼을 했으면 서로 남남이 되는거잖아, 근데 그 끈을 잡고 있으니까 이것두 저것두 안되더라구, 그래서 내가 독립적으로 키우는 거지..." (사례4)

"애들이 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신경이 안 쓰였는데, 애들이 조금씩 한 해 한 해 넘어가면서 애들두 인제 처음엔 몰랐는데 시설에 오면서 애들이 그걸 아니까 작은애가 가끔씩 지나가다가 아빠 얘기 꺼내구 그러면 그냥 되놓구 그래요. 나중에 아빠가 찾아올 때까지는 서로 이렇게 살자구 얘기 했어요" (사례5)

"아빠에 대한 나쁜 기억을 주고 싶지 않아서 제가 애 아빠한테 큰아이에게 휴대폰을 사주라고 했어요, 서로 연락하면서 정서적 지지를 해주었으면 하구요, 그래서 지금은 저하고는 연락을 안해도 큰 애 하고는 연락을 해요" (사례6)

"큰애한테 그래요 너는 동생한테 형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구, 아빠 역할두 대신해야 한다구.. 동생한테는 니가 아빠가 될 수도 있는 거라구... 챙겨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가르쳐줘야 한다구..(중략) 저녁에는 설거지두 하구, 작은 애는 내가 힘들다고 하면, 어깨두 주물러주구 그래요" (사례7)

한부모가족의 경우, 좀 더 큰 자녀가 재정, 가사, 아동보호의 요구에 상당한 책임을 갖는 것은 필수적이고 기능적일 수 있으며, 부모와 보호제공자는 자녀들에게 일관성있는 기대와 결과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Walsh, 1998: 156). 본 대상자들의 경우에도 자녀 중 형이 동생을 보살펴주고, 자녀들이 집안일을 돕는 등 한부모가족으로서 새로운 가족구조를 형성해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한편, 이혼과 재혼가족에서 아동과 가족들은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가 관여하는 가구 전체의 상호 협력적 양육팀을 구성할 수 있을 때 가장 최선이다(Walsh, 1998: 157)라는 지적과 달리, 이혼 후 부부들이 자녀양육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 아이들을 한 달 동안 아빠한테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려거나 하면 아이들을 때리고 야단치곤 했나봐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기겠다고 그래서 다시 아이들을 데려오면서 두 번 다시 아이들 아빠한테 보내지 않기로 했어요". 이 대상자는 자녀양육문제를 전 남편이나 남편 가족들과 협력하거나 도움을 받지 않고 있다. "처음에 이혼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아이 양육문제로 아빠하고 만나서 의논하자고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끝내 나오지 않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그 때 나오지 않은 것이 더 다행이라 싶어요, 아마 제가 다시 재결합을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부 대상자는 전 남편과 모든 것이 단절된 상태이며, 일부는 母 본인과 상관없이 자녀들과 전 남편의 지속적 연결을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모-자녀간 관계가 더욱 밀착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3) 사회경제적 자원

연구대상자들이 이혼이라는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자원은 어떠한지 면접결과 나타난 특성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확대가족의 지원

"친정 언니와 오빠가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구 무엇보다도 이런 시설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

는 가장 큰 도움이었어요. 지역 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우리 막내를 치료할 수 있게 된 것두요. 정말이지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니네요" (사례1)

"입소하기 전에 친정 언니 집에서 한 1년 있었어요, 남편은 따로 있었구. 신용불량자되고 카드빚 때문에... 친정언니가 옷수선 기술을 받아보라고 해서, 지금은 가게를 얻어 직접 제가 하죠"(사례5)

"친정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작은 오빠는 지금까지도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들도 많이 안정이 되고, 저 또한 정규직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 공부도 할 수 있었구요" (사례6)

(2) 재정적 보증 지원

"교통사고 난 다음에 취직하려고 할 때 우선적으로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사무직보다는 영업 쪽으로, 내가 편하게 시간을 아이들에게 낼 수 있도록, 그러다가 보험회사 지점장님이 직접 보증을 서 주셔서 지금 보험설계사로 일하게 된거구요" (사례2)

(3) 지역사회자원 동원

"시설에 와서 보니까 모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 오히려 마음이 편했고, 그리구 자활에서 일하면서도 팀장님이 많은 지지를 해주셨어요, 그리구 이번에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도록 해주신다고 해요. 매우 감사해요" (사례3)

"내가 무작정 이쪽에 모자원에서 주택만 준다고 해서 그냥 온거야 그냥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편할것 같아서.. (중략) 도움도 많이 받고 마음의 평안이지뭐 주거가 있으니까 안정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일단 타지에 오니까 내가 뭐 일단 뭘하든지 자존심일까 그런게 덜해 연고지 있을 때는 부모님 생각하면...(중략)" (사례4)

"처음 일산의 쉼터에서 있으면서, 그곳 YWCA에서 교육받고, 가사도우미 일을 소개시켜 줘서 한 4개월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중략) 그리구 무엇보다두 여기 시설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밖에 나가면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온실속에서 사는거 같은데..." (사례7)

대상자들 대부분은 확대가족(친정부모, 형제자매)과 친구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도움을 받았으며, 특히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이후 안정된 주거환경과 더불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생활하면서 오히려 심리적 안정과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옥선화 등(2004)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자조공동체에 대한 요구에서 무엇보다도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자신이 실패자나 낙오자, 이탈자가 아니라는 의식을 키워주고, 정서적 지원을 받으며,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정보적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Walsh(1998: 167)는 확대된 친지와 사회적 네트워크는 실제적 원조와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역사회 연결을 제공하며, 정보, 구체적 서비스, 지지, 교제와 휴식을 제공하고 안전감과 결속력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가족은 넓은 범위의 친척, 친구, 이웃, 지역사회서비스, 치료나 상담 등에 더 의지하며, 여기에는 접촉의 빈도나 네트워크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특히 가난한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친척자원을 통하여 생겨나는 강점과 레질리언스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Walsh, 1998: 168)는 지적과 같이, 본 대상자들도 여러 사회경제적 지원에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모자보호시설 입소가 중요한 자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자원(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상담센터, 자활후견기관 등)이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망은 가족레질리언스를 강화해주는 중요한 완충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의사소통과정

1) 명료성

대상자들이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과정에서 경험한 명료성은 어떠한지 면접결과 나타난 특성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서로가 말을 하려구 하죠. 큰애는 큰애대루, 작은애는 작은애대루,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하자구 하죠. 아빠하고 이혼할 때도, 이혼하게 된 이유를 말하구, 아이들도 직접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큰 애가 나중에 그러더라구요, 자기는 절대로 아빠와 같은 사람은 만나지 않을 꺼라구 하더라구요" (사례2)

"애가 말을 잘 들어요. 잘 들으니까, 엄마가 하라면 그냥 머릿속에 그렇게 있나봐요. '엄마가 하라면 무조건 해야 된다' 제가 또 틀리지 않게 얘기하고, 그런 것두 있구, 또, 학생이면 학생다워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편이거든요... (중략) 제가 애한테 하는 얘기는 제일 우선은 어떤 경우에든 거짓말을 시키면 안된다는 거예요. 엄마두 마찬

가지지만,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뭔가 요구사항이 있어도 엄마가 형편이 못돼서 못들어줘서 못해주는 것두 있구, 엄마가 안된다고 생각해서 못들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솔직하게 얘기하라구 해요" (사례3)

"나같은 경우에는 위로 딸레미가 둘이잖아 그래서 애들이 이해를 많이 해줘서 그런지 다 수긍을 하더라구, 대화를 많이 했어 그게 편하더라구. 애들이 친구도 돼고, 애인두 돼고, 그냥 애들하구 장난두 치구, 그런데 가끔씩은 엄마, 어른도 잘못할 때가 있잖아 그럼 또 내가 사과해" (사례4)

" 그냥 잠자리에서 이야기 하든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나가서 아이들 뭐 먹이면서, 멀숙멀숙하자나요 얘기하기가 그러니까...(중략) 큰애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을 확 내놓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게 좀 그런데 작은애는 잠자리에서 많이 얘기를 하지, 작은애는 같이 자니까... (중략) 일이 있으면 무조건 엄마한테 얘기하는 걸루, 학교에서 일이든...엄마가 알아야지 해결을 해줄꺼구, 남자 친구든, 여자친구든 서루 다 얘기하라구 하니까 친구관계든, 학교에서두 일이 있으면 다 얘기하라구 해요" (사례5)

"내가 질문을 해요, 궁금한거 있을 때 질문하고, 학교갔다 왔을 때, 오늘 학교생활은 어땠는지..근데 내가 아직까지 아쉬운 것은 애들이 자기 의사표현을 제대로 아직까지 전달이 정확히 안되서...(중략) 그리고 아빠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큰 애는 연락을 하겠다고 하는데, 작은 애는 싫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했어요" (사례6)

"매우 직설적이죠. 제가 일단은 애들한테 제가 기선을 잡고 제압을 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한 다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하죠. 그리고 안아줘요 그리고 일관성 있게 해요. 큰애가 그래요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안데요, 그리고 자기 부를 때랑 동생 부를 때가 다르데요" (사례7)

대상자들은 자녀들과 비교적 숨김없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가능한 한 많은 대화를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가족구성원이 침묵, 비밀, 왜곡을 통하여 고통스럽거나 위협적인 정보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려고 할 때, 이러한 의사소통의 차단은 이해, 충분한 의사결정, 진정한 관계에 대한 장벽을 만들어낸다(Walsh, 1998: 183)는 점은 본 대상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사례 4>를 제외한 대상자들은 자녀들 대부분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자녀보다는 어머니 위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구성원들은 가능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이 다루는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 더욱 재확신을 얻게 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위기에 대처하고 정신적 외상을 치료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Walsh, 1998: 183)라고 했는데, 본 대상자 대부분이 자녀가 어렸을 때 이혼했기 때문에 이혼이 부모의 일방적 결정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자녀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2)개방적 정서표현

대상자들이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과정에서 경험한 정서표현은 어떠한지 면접결과 나타난 특성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충분히 감정표현을 하지 않았던 아이들이라 충분히 하겠금...(중략) 막 화를 내두 그냥 속으로 '더해라, 더해라' 하구, 울 때두 막 더 울게 하구, 안아주구, 그렇게 해요... 화나면 화나는대로 이야기해요. 아직까지는 뭐 감정이... (중략) 의사표현할 때는 항상 편하게 해요" (사례1)

"처음에는 명령조였어요, 나중에 유아교육을 공부하면서부터 그 대화법이라는게 있잖아요. 그때부터 주로 얘기를 해요. 만약 내가 화날것 같으면 '엄마 지금 기분이 너무 나쁘니까 그냥 말 안시켰으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표현을 더 많이 해요" (사례2)

"다 보여줘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기분이 나빠도 얼굴에 드러나구, 기뻐도 드러나구, 감정표현이 둘 다 얼굴에 확실히 드러나요. 겉으로 확실하게 드러나서 그건 성격이 비슷한거 같애요. 정말이지 희노애락이 얼굴에 다 보여요 둘 다...(중략)" (사례3)

"애들이 잘못하면 앉혀놓고 내가 이러이러해 부모로서 자식이 잘못되는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면 어머니 하시고 싶은대로 하시라고 그러면 그럼 엄마는 몇 대 때리고 싶다 이러면 몇 대 맞는거지..." (사례4)

"애들두 그렇구 저두 그렇구 화가 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솔직하게 저걸하니까, 기분나쁘면 뭐, 말투나 그런데서 나오니까 될 수 있으면 잠자리 같은것두 애들이 잘 때 인사하구, '잘자라구, 사랑한다구' 될수 있는대로 그렇게 많이 하려구 해요 서로.." (사례5)

"많이 못했어요, 솔직히 이혼 후 처음 몇 년 동안은 많이 못했구..지금 여기 시설에 살면서 어느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그런 것을 하는데... 내가 여기 직장 다니면서 애들을 같이 데리구 다니면서, 내가 하는일,

엄마가 하는 일을 보여주구, 자기들이 직접 체험하게두 해보구, 그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사례6)

"큰애가 그러더라구요. 맨날 동생만 위해주고 자기는 안해준다구 뭐든지 동생한테는 다 허락하고 자기는 안그렇다구..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는 그래두 아빠하구 이것저것 해본 것이 있지만, 동생은 아빠하고 해본 것이 하나두 없다구...(중략) 그리구 제가 힘들 때는 힘들다구 아이들한테 말해요" (사례7)

대상자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때로는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토로한 것에 대해 자녀들에게 미안함을 느껴서 오히려 자녀들에게 애정표현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적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 차단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구성원들은 그들의 마음과 가슴속에 있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Walsh, 1998: 188)는 지적과 같이, 본 대상자들은 한부모가족이 된 후에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의사소통과 개방적 정서적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3) 상호협력적 문제해결

대상자들이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과정에서 경험한 상호협력적 문제해결은 어떠한지 면접결과 나타난 특성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애들이 싸우는 것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걸 얘기로 풀어요, 가끔 소리지를 때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아이들 상태를 생각해가지구, 말로 풀어요" (사례1)

"저는 좀 집요한 편이예요, 뭐라그럴까 그냥 묻어두구 넘어가거나, 아무 말하지 않구 넘어가두 되는데... 저두 여느 부모처럼 그런게 있었거든요. 양쪽 부모가 있는거보다 더 그런게 되게 압박이 심해서 그래서 모든 면에서 잘 키울려구 노력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그게 아이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거예요" (사례2)

"아이와 둘이서는 얘기를 많이 하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고지식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맞다는 것을 애한테 주장하구 싶어서 그런가 끝내는 내 말을 애한테 관철시켜버려요 그냥..." (사례3)

"우리가 헤쳐 나가지 못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는 주어진 조건에서 어떻게 됐든지 엄마가 가진 것이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면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네들도 엄마를 위해서 집안일을 좀 더 도와주겠다느니 서로서로 보완해주고 특별한게 없는 거 같애" (사례4)

"어쨌든 저랑 애들하구 해결해야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애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줄려구 하는데 이제 정 그게 아니다 싶으면 그런건 또 제가 해주진 않아요, 그냥 딱 짤라서 뭐 야단을 쳐서라두 그걸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뭐 아주 크게 되지 않으면, 웬만하면 들어줄려구 하지요 그리구 아이들하구 합의를 많이 봐요" (사례5)

"처음에는 지금두 그렇지만 좀 강압적인 편이예요. 애들이 좀 내가 맘에 안드는 행동이나 어떤거...(중략)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것은 뭐 이러 이렇다...아직까지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좀 많이 생각하구, 내가 어느정도 결정이 내려졌을 때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는..." (사례6)

"제가 학교에 가겠다고 하니까, 큰애가 그러더라구요 엄마는 대학 안나와도 그냥 우리 엄마니까..(중략)'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애가 밤늦게 혼자 있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는구나..그래서 그래 엄마 학교 안다닐께 그렇게 안심시켜 주었어요. 아마 예전에 제가 간호학원 다닐 때 늦게까지 혼자 있었던 것이 싫었나봐요" (사례7)

대상자들은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주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자녀들과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고생 자녀를 둔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어린 자녀를 둔 경우보다 자녀들과 더욱더 친밀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의사소통과 문제해결이 어머니의 일방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에는 이혼으로 인한 父의 부재로 '아비없는 자식' 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더욱더 강압적 태도로 자녀를 대하고 있었다. "혹시 전에는 이래저래 행동을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혼자 살면서, '쟤가 엄마 혼자 키우는 애야, 아빠가 없어' 뭐 이런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엄격했어요", "큰애한테 그러지요 밖에서 행동할 때 항상 잘 하라구, 그리구 엄마가 너한테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하라구" 이는 남성위주와 가부장적 분위기의 한국사회에서 여성 혼자의 힘으로 자녀를 키우는데 대해 긍정적 시각보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클 것임을 인식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Ⅴ. 논의

본 연구는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혼이라는 역경을 긍정적 도전의 기회로 변화시킨 가족레질리언스의 요인들에 대해 Walsh의 이론에 근거하여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에 대해 Walsh의 가족레질리언스 구성요인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념체계와 관련하여 나타난 요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대상자들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혼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역경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이혼에 대하여 낙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이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허용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본인들 스스로도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이혼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편견, 경제적 부담, 이혼한 여성으로 살아가는 고달픔과 사회관계망의 약화 또는 단절은 이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옥선화 등, 2004)는 것과 차이가 있다. 또한 이혼 스트레스는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유미, 2007)이라는 지적과 달리 본 연구대상자들은 오히려 이혼이라는 역경을 극복해 나가면서 한부모가족으로 그들의 관계가 평소보다 더 풍부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Walsh의 레질리언스 관점을 지지해 주었다. 다음으로, 대상자들은 스스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과 잘 할 수 있다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였으며, 종교나 신앙생활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 자기 효능감 등으로 역경을 극복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초월과 영성은 상대적으로 적게 표출되었는데, Walsh(1998)의 가족레질리언스 요인에는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조직유형과 관련하여 나타난 요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연구대상자 대부분이 원가족(친정부모, 형제, 자매)과 지역사회로부터 정서적 및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 자원 중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 모자보호시설이 크게 도움이 되고 있었다. '입소하기 전에 친정 언니 집에서 한 1년 있었어요', '살던 집에서 쫓겨나 갈 데가 없어서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가 여기에 들어오게 됐어요' 등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모자보호시설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한부모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를 강화시켜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입소자 전원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중 5월 가족의 날 행사와 여름방학 하계 가족캠프, 그리고 가을 가족등반대회와 가든파티, 12월 송년의 밤 행사 등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父의 부재로 母와 자녀만의 나들이에서 오는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에는 아이하고 나들이 같은 것을 못했어요, 괜히 사람들이 우리만 쳐다보는 것 같고, 왜 쟤네는 아빠가 없나 하고 생각하는 것 같구...'등으로 진술하였다.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사회관계망 지원에 대한 탐색적 접근'에 대한 연구에서 옥선화 등(2004)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자신이 실패자나 낙오자, 이탈자가 아니라는 의식을 키워주어 정서적 지원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대상자들도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함께 생활함으로써 커다란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공부방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자녀들을 母 혼자의 힘으로 양육할 때보다 母의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큰 위안과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집에서 혼자 있을 때보다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함으로써 고립되지 않고 또래들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사회성 발달에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성연(2004)의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 중 친지, 사회단체나 기관 등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대상자들에게 모자보호시설 입주는 강력한 지원체계로 작용해왔다고 하겠다. 또한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자활사업 참여와 지역상담센터에서의 상담서비스 등의 도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본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특히 사회경제적 자원이 Walsh(1998)의 레질리언스 요인들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부각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Golby와 Bretherton(1999)도 미국가족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이혼 후 모와 자녀관계의 적응에는 사회적 지지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자 대부분은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으로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융통성을 보임으로써 변화에 비교적 잘 적응한 반면, Walsh(1998)의 레질리언스 요인인 연결성의 의미는 덜 추출되었다. 서구의 정서와 달리 한국의 정서에서는 이혼한 부부사이가 '남보다 못한 사이'로 남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자녀 양육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배우자나 시댁식구들과 교류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이혼한 부부라도 친구처럼 지낼 수 있으며 자녀양육도 공동으로 책임지는 서구사회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Walsh(1998)의 레질리언스 요인으로서의 연결성은 그 의미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혼으로 인해 가족생활의 변화가 생겼을 때 변화를 안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환경을 유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박인정(2007)의 지적과 같이, 본 대상자 중 父와 소식이 단절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母는 자녀들이 원할 경우 父와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어린 자녀를 둔 대상자는 자녀가 좀 더 성장한 후에 父와의 만남을 허락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이혼 후 자녀의 긍정적 적응에는 같이 살지 않는 부모와의 만남에 대한 예견과 신뢰가 접촉의 양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한 Walsh(1998: 144)의 주장과 일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장혜경 등(2001)의 연구에서 여성 한부모는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되고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어서 더 나아졌다고 하였는데, 이와 유사하게 본 대상자들도 오히려 이혼 후 심리적 안정과 편안함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의사소통과정과 관련하여 나타난 요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대상자 대부분의 경우 가족구성원간의 상호 의사소통보다는 母입장 위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대상자 대부분이 아직 어린 자녀를 두고 있어서 '아비없이 자란 자식'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의식하여 보다 강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상자들은 가족구성원간의 개방적 정서표현과 감정공유를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이해해주려는 정서를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정서지도는 부모의 실패한 결혼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Walsh, 1998: 288)는 점에서 가족의 강점으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대상자 대부분이 문제해결을 위해 가족구성원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협력보다는 母의 독단적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개방적 의사소통요인과 마찬가지로 대상자 대부분이 아직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보다는 어른인 母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Walsh(1998)의 이론에 근거할 때,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혼이라는 역경에 대처할 수 있는 가족레질리언스 요인을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특히 Walsh(1998)의 가족레질리언스의 신념체계 중에서는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와 긍정적 사고, 조직유형 중에서는 사회경제적 자원 및 융통성, 그리고 의사소통과정 중에서는 개방적 정서표현이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Walsh(1998)의 가족레질리언스 요인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Walsh(1998)의 이론에 근거하여, 이혼이라는 역경을 긍정적 도전의 기회로 변화시킨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 요인을 규명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있다. 이혼으로 인해 모든 관계와 자녀의 삶이 돌이킬 수 없이 깨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더 이상 부모의 갈등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오히려 개선된다는 Walsh(1998: 445)의 지적처럼, 본 연구에서도 생명을 위협하는("갑자기 가스레인지 벨브를 틀어놓더니 라이타를 키는거예요", "큰 애보는 앞에서 목에 칼을 들이대더라구요") 가정폭력 그리고 알콜중독을 동반한 폭력으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나 이혼 후 모-자녀 관계가 안정적으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이혼을 통해 가족은 재조직, 재정적 지원, 양육 및 방문에 대해 결정해야 하고, 분노, 상처, 배신감, 상실과 관련된 포기 등과 같은 다른 복잡한 감정과 슬픔에 대한 정서적 해결을 다루어야만 한다(Walsh, 1998: 194)고 했는데, 본 연구대상자들은 이혼의 역경을 극복하면서 모-자녀 관계로 가족 재구조화를 이루었고, 이혼에 대한 긍정적 의미부여와 역경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통해 복잡한 감정과 슬픔의 정서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전 남편으로부터 재정적 지원, 특히 자녀양육에 대한 협력과 지원은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다만 일부 대상자들의 경우, 규칙적 방문은 아니지만 자녀와 아버지의 상호연락과 만남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는 서구와 한국사회의 문화와 정서 차이에서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서구사회의 경우, 이혼한 부부가 자녀양육 문제 등으로 정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재혼한 후에도 서로 각각의 배우자들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사회의 경우, '부부가 살다가 헤어지면 남보다도 못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혼한 부부들은 대부분 남남처럼 지내게 된다. 본 연구 대상자들도 <사례 4>를 제외하고는 이혼 후 전 배우자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확대가족과의 만남조차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취약점으로 부각되었다. 母위주의 의사소통, 전 배우자와의 관계 단절 등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안과 보완점이 필요하며, 가족레질리언스 요인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들의 이혼사유는 대부분 전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과 함께 가정폭력, 알콜중독, 도박, 외도 등을 포함한 복합적 요인이었다. 따라서 폭력과 갈등이 지속되는 역경을 이혼을 통해 긍정적 도전의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었으며, 자녀들에게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전 배우자(남편)와는 관계단절 상태로, 자녀양육과 생계유지의 이중고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여성 가구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영유아시절에 아빠와 헤어진 아동의 경우에는 바람직한 남성역할모델을 접할 기회가 적어 성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Walsh(1998: 445)도 지적하기를 장기간의 추적 조사결과, 자녀가 부모의 이혼 후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양쪽 부모와 관계를 모두 유지하고 그들이 양육과 재정문제에 최대한 협력할 때 가능하다고 했다. 따라서 이혼 시 일정액을 자녀양육비로 반드시 지급토록 하는 법적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는 달리, 이혼은 결혼이 끝나버린 것일 뿐, 이전 배우자는 각자의 삶을 살며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전 배우자는 더 이상 부부는 아니지만 남은 생애 동안 자녀를 위한 공동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Walsh, 1998: 449).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자녀들은 비동거 아버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실행능력과 적절한 재정적 지원능력을 갖춘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자녀들과 일대일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설 입소기간이 3년으로(1년씩 연장 2회 가능)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부모가족들이 충분히 자립하여 퇴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도시와 달리 농촌지역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임대아파트와 임대주택 등이 없거나, 있어도 공급이 부족하여 필요시에 즉각 입주가 어려우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퇴소한 후에 마땅히 갈 곳이 없다. 그 결과 또다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주택공급에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여성 한부모가족은 대부분 본인보다는 이혼한 전 배우자의 카드 빚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일반 직장에서는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안정된 직장을 통해 보다 나은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복지자금대출과 저금리 주택전세자금대출 등을 받고자 할 때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사회적 네트워크가 미비한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바우처사업 중 상담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간 갈등을 줄여줌으로써 심리적 안녕을 강화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상담원이 주말에도 센터에 상주하여 한부모가족이 편리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부모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아이돌보미 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미취학 아동 등 어린 자녀를 둔 여성가장이 보다 안심하고 늦은 시간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송다영(2006)은 혼자서 자녀양육과 생계문제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 여성가구주에게 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모자보호시설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서로 연계하여 한부모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안자(2005)도 한부모가족이라는 가족구조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지라도 가족구성원들간 혹은 사회적 지지를 통한 지원과 관심이 제공된다면 가족의 레질리언스는 높아지고 이에 따라 가족스트레스는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다. 넷째, 한부모가족의 여성 가장들이 재정적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직업훈련교육을 원할 시에는 교육기간(3-6개월)동안 안심하고 직업훈련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유지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족 여성가구주의 자립을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자활사업 참여등과 같은 경제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상을 고려한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모자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질적 자료를 분석한 것이므로 전체 한부모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원책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다 전국적 규모의 연구를 통해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에 대한 기초자료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후에도 이들이 지속적으로 가족레질리언스를 유지하며 한부모가족으로 잘 적응하는지에 대해 추적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구정화(2005). **한부모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 적응에 미치는 영향-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고은(2006). **가족탄력성이 장애아동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

김미옥(2001a). 장애아동의 적응에 대한 가족 탄력성 (Family Resilience)의 영향력 분석. **한국가족복지 학, 8**, 8-39.

김미옥(2001b). **장애아동가족의 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가족탄력성 (Family Resilience)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김안자(2005). **가족 레질리언스가 한부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영주(2007). **가족탄력성이 초등학교에 통합된 장애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현순(2007). **뇌 손상자 가족적응 향상을 위한 가족탄력 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경성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박인정(2007). **한국 이혼자녀의 가족 Resilience에 대한 사례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지영(2002). **부모이혼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유연성(Resilience)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태제・시기자(2007).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송다영(2006). 한부모가족 여성가구주를 위한 심리정서적지원 프로그램 신패와 임파워먼트 대안. **한국가족 복지학, 11(1),** 131-154.

송옥선(2006). **부모이혼을 겪은 대학생의 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탄력성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여성가족부(2008). 200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

오승아・이양희(1999). 장애아동가족의 Resilience관련 요인 척도의 개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6(2),** 21-48.

옥선화・최새은・권소영・강유진(2004). 이혼한 여성 한부모 가족의 사회관계망 지원에 대한 탐색적 접근. **한국 가정 관리학회지, 22(1)**, 181-191.

윤수희(2004). **가족탄력성이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선애(2004). **만성질환아동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인수(2004). 가족탄력성 증진을 위한 가족심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221-239.

임유미(2007). **이혼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 적응에 미치는 영향-모자보호시설 입소자 중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용주(2006). **장애아동가족의 가족탄력성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장혜경・송다영・김영란・김정훈(2001). 한부모가족 및 실질적 여성가장가족의 여성을 위한 가족정책방향과 과제. 가족정책의 새로운 전망.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과 가족정책 세미나자료집.

전유진(2006).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가족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영향에 관한 연구-모・부자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성연(2004).여성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153-167.

조용환(1999). **질적연구-방법과 사례-**.서울: 교육과학사.

천혜정(2004). 가족학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 경향 및 방법론적 문제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61-173.

통계청(2007).인구주택총조사. http://www.index.go.kr/ega ms/defalut

현은민・임보래・장경문(2006). 한부모가족의 건강성관련 특성과 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4),** 23-38.

현은민(2007). 한부모가족의 적응-가족탄력성의 완충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107-126.

홍정애(2007). **가족치료놀이를 적용한 가족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mato, P.R.(2000). The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ge and the Family, 62(4),* 1269-1282.

Golby, B.J. & Bretherton, I.(1999). *Resilience in postdivorce mother-child relationships.* in McCubbin, H.I., Thompson, E.A., Thompson, A.I. & Futrell, J.A.(Eds.). *The dynamics of resilient famili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Hawley, D.R., & DeHaan, L.(1996). Toward a definition of family resilience: integrating life-span and family perspectives. *Family Process, 35(3),* 283-298.

Patterson, J. M.(2002). Understanding family resilienc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8(3),* 233-246.

Paul, H. A.(2007).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Child and Family Behavior Therapy, 29(4),* 65-68.

Schwartz, M.A. & Scott, B.M.(1997). *Marriage & families: Diversity and change* (2nd ed.). New Jersey: Prentice-Hall, Inc.

Walsh, F.(1998). 양옥경·김미옥·최명민 공역(2006). **가족과 레질리언스.** 서울: 나남출판.

Walsh, F.(2002). A family Resilience framework: Innovative practice applications. *Family Relations, 51(2),* 130-137.

Wolin, S. & Wolin, S.(1993). *The resilient self: How survivors of troubled families rise above adversity*. N.Y.: Villard.

□ 접 수 일 : 2008년 11월 14일
□ 심 사 일 : 2008년 12월 02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01월 23일